

함평군,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서 수상

전남도내 22개 시·군 대상 실시

순수 투자 유치 실적 등 8개 항목 평가

함평군이 전라남도 주관 '2019 전남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수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

치 여건조성 ▲투자유치 일반행정 등 8개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 함평군이 기관표창과 함께 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올해 군은 학교연 영산강변 일원에 문화복합시설(숙박·상가·운동오락시설 등)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한 9,000억 원대 사포관광지

개발 투자 사업을 유치했다. 또한 투자개발과를 중심으로 부서별 기업책임제인 1사 1담당제를 추진,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으로 총 12개의 신규 제조 기업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 산단 내 (주)와이제이씨와 맷나푸드(주)가 각각 수출 700만불대, 100만불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민선 7기 내 신규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자체 보



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유치 유공자(공무원·민간 포함)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보조금의 경우 오는 2020년 4월까지 관련 조례(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

폭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기업도시로서의 할평을 인정받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완도군,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힘써

완도군이 올 한 해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4월, 완도군은 청년 장병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 장보고대대,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남인력개발원과 청년 일자리창출 통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예정자 및 예비군 대원들의 진로 상담, 취업희망자 구직 관리, 경력개발 관련 교육안내,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오고 있다.

6월에는 완도군과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7월에는 전남인력개발원,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예비군 훈련 기간에 장보고대대를 방문하여 청년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군 및 전역 예정 군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일자리 상담과 유선·방문 상담을 통해 총 27명이 일자리를 찾아 실업률 해소에 기여했다.



군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전년 대비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이 6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소기업에서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개월 간 중장년에게는 월 30만원, 기업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완도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3명이 혜택을 봤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청·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도 쌓고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강진읍 천사들의 나눔방 행렬 줄이어



천사들의 나눔방에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잊고 있다.

강진읍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와 나눔의 공간인 천사들의 나눔방에 지난 16일 병영면 남성미을 김규현 복지이장

이 저소득 이동들을 위한 장난감과 인형 50점을 기부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에 기부한 장난감과 인형은 아동이 있는 저소득 10가정에 전달됐다.

김규현 복지이장은 '장난감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 아이들이 이장난감을 받고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열어

지역안보 강화 목적

2019년 4분기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16일 육군 8539부대 영암대대 안보교육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해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영암대대 예비군식당 신축 및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개관식을 시작으로 2019년 통합방위 추진결과와 영암대대 연락사항 및 영상시청, 협의회 위원 안건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2019년 통합방위 전술운영, 예비군 대대 지원사항, 명절군경 위문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통합방위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기관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는 매분기 개최되고 있으며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해 비상시태 발생 시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벌써 12년째…진도군 친환경농대 출업식



종자기능사, 발효효소 관리사 등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11명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 농업기술 전문화를 위해 노력했다.

국회산업화연구원은 기존 품목별 국화 연구회로 구성된 회원들이 참여해 운영되었으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도사랑 국화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농업종사 다양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물놀이반은 1년간 배워 갚고 뒤은 실력을 전라남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진도군민의 날 길놀이 등 진도군 주요 행사에서 공연했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대학은 지역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앞으로 농업인대학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 인력 양성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女協, 다문화 정착사업 추진

지난 13일 장흥군과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을 위한 일자리 one-stop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20세대에 기전제품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은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돋기 위해 국적취득, 다문화가정 친정물품보내기, 육아 상

답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성단체회원들이 관리하는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매트 등 소형가전제품을 지원하였다.

홍정님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무안군, 영양플러스 교실 운영 큰 호응

무안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영양플러스 대상자 및 보호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성장부진,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 수유부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간자, 당근, 달걀, 쌀, 우유, 김, 미역 등의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스스로

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하는 사업이다.

이번 영양교실은 '영양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라는 주제로 영양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식생활지도 등 이론교육과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결핍개선을 위한 실습을 병행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흥미를 이끌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